**한국 조직 내의 리더십 – 치밀형**

“치밀형”의 리더십은 치밀, 꼼꼼, 세심하며,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워크홀릭 속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주목 받는 성향은 아닙니다. 때때로 권위적이고 타인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을 원하나 기대만큼 인정 받지는 못합니다. 자기 나름의 명분을 중시하며,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없습니다. 잘못에 대해 자책을 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주변을 즐겁게 하려 하나, 별로 즐겁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간적인 관계나 열정이 부각되기보다는 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인간적으로는 밋밋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치밀형의 대표적인 행동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동료 의식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한다.
*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후에 의사 결정한다.
*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리더의 관리 소홀이다.
* 토론/강연을 통해 경영철학이나 원칙 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이건희 전 회장의 리더십 유형이 '치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꼼꼼한 치밀형'의 특성입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그룹 차원의 각종 홍보효과로 인해 영웅형의 리더십이 가장 잘 부각되어 있는 리더이기도 합니다. 치밀함에는 '포커 페이스'를 가진 리더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웅의 이미지와 치밀형의 리더십이 중첩된 이미지는 바로 “물밑에서는 치밀하게 모든 것을 짜놓고 겉으로는 호탕하게 보이려는 경향”으로 드러납니다. 2005년 전국을 들끓게 한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터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은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녹음테이프의 내부 보고문건과 녹취록(X-파일)에 1997년 여당인 신한국당 경선 및 대선 때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통한 삼성의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삼성은 물론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서도 대중이 긍정적인 이미지와 동시에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패를 펴보이는 느낌이 아닌 까닭입니다. 거침없이 전진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막을 하나 걷어내면 촘촘하고 탄탄하게 사방에 선을 대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치밀함은 문어발식으로 연결된 섬세한 조직의 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직과 계획은 수하 부하들의 몫입니다.

삼성에 몸 담고 있는 조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동료 의식이 없으면 가차없이 퇴출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은 진심이 아닌 채로 겉으로만 드러나는 충성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직의 룰이 붕괴된 사례가 바로 2007년 말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자신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관리해왔다고 폭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